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와 강남구청이 함께하는
선한나눔운동

수거장소
사회봉사관 2층 구름다리 옆 기부박스

참여방법
목회행정기획실 박지훈 전도사
(02-2056-5715)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6월 3일(월) ~ 7월 12일(금), 40일간 광림교회 본당과 지교회에서 진행

간절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호렙산 기도회는 6월 3일(월) ~ 7월 12일(금)까지 40일간 매일 새벽 4시 45분 광림교회 대예배실,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힘찬 찬양과 은혜의 말씀,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부르짖음의 함성이 호렙산 기도회에 열기를 더해주고 있다.

1989년 처음 시작된 호렙산 기도회는 36년간 광림교회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준 영적 산실이다. 호렙산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곳이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장소이다. 광림의 호렙산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에 놀라운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현장이다.

2024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광림의 성도들은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 일터와 환우, 그리고 개인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본당과 지교회는 물론 해외에 있는 광림미션센터와 광림의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교회에서도 호렙산 기도회에 함께 하며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유튜브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국내외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자
이번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는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See, the great thing the Lord has done!) (삼상 12:16)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40일간 매일 새벽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6월 3일 첫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사 51:1-8)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사명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말했다.

본당 로비에는 호렙산 기도의 벽이 설치되었다.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

을 적어 기도의 벽에 꽃으며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질병과 삶의 문제로부터 치유함 받기를 소망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지역별로 18대의 호렙산 버스를 운행하여 매일 새벽 성도들이 성전으로 오는 길과 귀갓길의 안전을 돕고, 기도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성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특송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6월 8일 첫째주 토요일에는 목회자들의 찬양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앞으로 남은 호렙산 기간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교회학교 학생들의 특송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

호렙산 기도회는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최초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이며 코로나 기간에도 멈추지 않고 그 역사를 이어왔다.

... 3면에 계속

엘림의 기쁨을 바라보라

“...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미국 전문 상담가인 아돌프 퀘자다(Adolfo Quezada)는 현대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평과 혼돈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질문이 없으므로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극심한 혼돈과 불안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삶은 평안 속에 있게 되며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억압된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자 점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마실 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불안과 혼돈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 속에 아파하고 의심하며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면서 바다가 둘로 나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냅니다. 불편한 현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현재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02년 미국에 경제대공황이 있을 때 모든 산업이 마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대부분의 기업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레스콧(John J. Raskob)이라는 청년은 투자했던 돈을 모아 맨해튼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지만 레스콧은 전혀 개의치 않고 건물을 높이 올렸습니다. 모든 사



출애굽기 15:22~27
22.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라 26.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함께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람이 좌절하고 실패에 져어 있을 때, 레스콧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경제 공황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레스콧은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헬라어로 ‘아코에’(akouei)이며, 이것은 ‘아쿠오’(akouo)에서 유래했는데 ‘들어서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집중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정리하여 상대에게 응

답할 때, 대화는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아들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어느 한 과학자가 식탁 위에 모유가 담긴 병 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땀을 았습니다. 과학자는 이 병이 여기에 얼마 동안 놓여 있었는지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75도 온도로 10분 동안 데워 식탁 위에 두었는지, 아니면 45도로 30분 동안 데워 두었는지 여러 측면으로 추론해 보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모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셋째,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줍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미국 의사 1,044명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내세가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학 이론을 배경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의술을 행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증거, 증명 없이는 믿지 않으며 결단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내세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은 단지 일회적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엘림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엘림에 가보니 열두 군데에서 샘물이 터져 목마름을 해소해 줍니다. 또한, 수십 개의 나무가 더위를 막아줍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2일 동안 정착하여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또한 기도로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의 축제이다.

교회학교에서는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모두의 호렙'으로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체험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

40일 말씀 노트 작성, 출석 스티커 붙이기, 주사위 이벤트 참여, 안수 기도회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청년부는 'SAIL TO HOREB'(호렙산으로 향

해하라)는 주제로 기도와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있다. 은혜로운 특송을 준비하고, 매일 주신 말씀을 공유하며, 국내외의 교육 선교지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한다. 매주 토요일 안수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있다.

청장년부는 6월 1일 비전랜드에서 열린 청장년1부 워크숍에서 기도 특강, 합심기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족이 함께 기도회에 참여한 믿음의 추억을 선사하는 소망사진관을 운영한다.

40일간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보이

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이 있다. 기도선교회는 새벽길 성도들을 맞으며 주차 봉사에 힘쓰고, 예배위원회는 안전한 예배를 도우며, 방송실과 중계 카메라는 온라인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위원회, 은혜로운 찬양으로 돕는 반주자와 찬양팀, 연주팀 등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광림의 호렙산 기도회는 더욱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

소현수 기자



포토 뉴스



여선교회 6월 월례회 6월 2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선교회 월례회가 열렸다.



남선교회 스테반 연합선교회 6월 2일(주일) 애잔관에서 1선교구 스테반선교회 80여 명이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선한나눔운동 5월 26일, 성도들이 기부한 생필품과 식품 등을 강남구 저소득 소외 계층을 위해 전달했다.



루체포레 운영 시간 호렙산 기간 동안 토요일과 주일은 오전 6시부터 카페를 운영한다.

담임목사 동정



6/3 ~ 7/12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 전시회



광림교회는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을 맞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본당 로비에서 웨슬리 유품과 영국 감리교도들의 유물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다.

웨슬리의 회심은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Aldersgate) 거리에 있는 모라비아인 교인들의 집회 참석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것을 듣는 도중에 웨슬리는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얻게 되었다. 회심 후 웨슬리는 1738년부터 어디서든 복음적인 설교, 논리적이면서 감동 있는 따뜻한 설교를 했다.

지금도 매년 5월 24일이 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웨슬리안들이 함께 모여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존 웨슬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따라 웨슬리채플까지 순례하는 풍습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존 웨슬리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이 자세히 펼쳐져 있었으며 광림교회 헤리티지 & 비전홀에 소장하고 있는 초기 감리교회 관련 유물 중에서 존

웨슬리의 석고상을 비롯, 설교집, 성경책, 기념품 등이 함께 전시됐다.

광림교회 헤리티지 & 비전홀은 영국 웨슬리 채플의 자매결연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기 영국 감리교회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존 웨슬리의 데스마스크는 공식적으로 런던 웨슬리채플, 미국 드류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광림교회에만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웨슬리 채플의 파이프 오르간 조각, 초기 감리교도들의 찬송가 등이 있다.

이번 전시회는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을 기념하는 기간 동안 본당 로비에서 진행했으며, 평소에는 사회봉사관 5층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득섭 기자



광림 4 STEPS 평신도 지도자 교육

제1기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 수료



광림교회 평신도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인 '4 STEPS' 상반기 프로그램 종강과 함께 제1기 영성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STEP 1 : Knowing Jesus'는 광림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성도들과 교리를 배우고 싶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매주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6주 과정으로 주일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임원 대상자들의 필수 코스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STEP 2 : Following Jesus'는 성도 및 집사 필수 코스로 제자도, 교회력, 직분, 교회의 조직, 전도와 관계성에 대한 콘텐츠를 중

심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교회 임원으로서 교회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 사는 길에 대해 배우는 과정입니다.

'STEP 3 : Serving Jesus'는 집사 및 권사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눕니다. 더 나아가 광림교회의 전통과 선교적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STEP 4 : Living Jesus'는 2박 3일 영성세미나로 진행되며, 이번에는 5월 23일(목)~25일(토)에 새롭게 단장한 광림세미나 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25명이 수료했으며 선교구 목회자들과 목회연구원 스태프들이 섬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부활의 삶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찬양과 여러 가지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가한 성도들은 지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잊고 있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음을 고백했으며, 서로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광림 4 STEPS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STEP 1'은 매주 진행되며 상시 등록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STEP 2'와 'STEP 3'은 상반기(3월 개강)와 하반기(9월 개강)에 각 10강씩 동시 진행됩니다. 'STEP 4' 영성세미나는 1년에 1~2회 진행되며 4주 전에 주보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 목회연구원 (02-2056-5733)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광림교회 주일예배 설교 음성 서비스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클립, 스포티파이 플랫폼에서 5월 중순 시작

온라인 미디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교회의 미디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장 설교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과 음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서비스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

로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교를 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편리하지만, 화면으로 봐야 하고 비용을 내지 않으면 광고 때문에 방해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영상 설교 이용이 쉽지 않다. 하지만 팟캐스트나 팟빵을 활용한 음성 설

교 서비스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운전 중이나 이동 중과 같이 화면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청취할 수 있으며, 설교 서비스를 구독하면 유튜브와 달리 다른 업체 방송이 옆에 뜨지 않아 오로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다. 유튜브에 비해 각 콘텐츠의 용량이 적어 데이터 소모가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팟캐스트는 유튜브(영상)와 같은 개인 라디오 방송(음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0년 이후 팟캐스트를 통해 음성 설교를 제공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이에 광림교회도 성도들이 편리하게 음성 설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에 '광림교회 주일설교'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음성 설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팟캐스트(Podcasts) 외에도 팟빵(Podbbang), 오디오클립(Audio Clip), 스포티파

이(Spotify)에서 음성 설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팟빵, 오디오클립, 스포티파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팟캐스트는 애플이 개발한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앱을 이용할 수 없다.

음성 설교 서비스를 담당하는 황지수 목사(광림방송 KLB)는 "지난 5월 19일 처음으로 설교를 업로드하고 널리 알리지도 못했는데, 미국에서도 접속하는 등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말씀에 목마른 교회 안팎의 성도들이 광림교회 음성 설교 서비스를 통해 은혜받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혜선 기자

청년부 호렙산 기도회 'SAIL TO HOREB!'



광림교회 청년부는 6월 3일부터 40일간 진행되는 제36회 호렙산 기도회에 'SAIL TO HOREB'(호렙산으로 항해하라!)라는 주제로 참여합니다. 'SAIL'은 영어로 '항해하다'를 뜻하며, 명사로

는 '뜻'을 의미합니다. 'SAIL TO HOREB'은 큰 배가 바람의 힘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광림의 청년들이 기도와 성령의 바람을 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를 위해 청년들은 네 개의 뜻을 달고 항해에 나섭니다.

- ① S : Special Song - 호렙산 기도회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청년들이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시 96:2)
- ② A : Applying the Word - 청년부 호렙산 밴드를 통해 받은 말씀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32)
- ③ I : Intercessory Prayer - 40일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여 청년부 교구와 사역팀, 국내의 교육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④ L : Laying on Hands Prayer - 호렙산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부 안수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더라"(행 19:6)
호렙산 기도회는 청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더욱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SSA(Shining Saturday Activities) 나라사랑 체험학습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정과 위훈을 기리는 곳이다. 과거에는 국립묘지라고 불리던 현충원의 첫 기억은 국민학교 때 소

풍이었다. 끝이 없을 것 같이 줄 맞춰 서 있던 수많은 묘비와 꽃다발들. 그리고 아카시아꽃향기가 너무나 진하게 났던 기억이 있다. 6월 1일 토요일, 35명의 SSA 초등학생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서 유품, 호국 전시관 견학, 국가상징 소개, 나라사랑 카드 게임, 현충탑 참배 등 준비된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름 모를 많은 이들에게 꽃을 올리고, 추모 기도를 드렸다. 현충탑 앞에서는 한 명 한 명 모두 헌화를 하고 참배했다.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자취를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라를 위해 일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없어서 좋아요' '전쟁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점점 공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안아 줄 힘을 가지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도의 힘을 말이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울려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종식되는 힘으로 발휘될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함정애 간사(교회학교)



청장년부

호렙산 기도회 준비 워크숍



제36회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며 청장년1부(미혼)에서는 6월 1일 토요일, 국제광림비전 랜드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광림의 기둥 세대인 청장년부는 호렙산 기도회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더욱 공고해지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 이 날 특강을 맡은 황지수 목사(청장년부)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본문 말씀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전하며 우리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늘

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광림교회 호렙산 기도회가 한국 교회 최초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로 코로나 중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호렙산에 올라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하며 청장년부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며 의지를 다졌다.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 찬양으로 준비하고, 감사와 회개, 간구를 통해 내가 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체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중요하며, 이런 기도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기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진 합심기도에서는 통성기도를 통해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호렙산 기도회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청장년부 지체들과 간절히 합심 기도했다. 이렇게 호렙산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신앙 훈

련을 위한 강의와 찬양, 새벽기도를 결단하는 기도로 동반 준비를 마친 청장년 지체들은 영육 간에 강건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비큐를 즐기며 애찬과 교제를 나눴다. 또 소그룹 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독려했다.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일 새벽 계속되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기도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며, 예수님과 깊게 친교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일을' 목도하며 공동체로 연합하기 위한 기도회 준비 워크숍은 일상에 지친 청장년 세대들이 도심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안식하며 심신을 단련한 따뜻한 배부른 자리였다. 이번 호렙산에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고민재 전도사(청장년부)

목회현장

지역 선교의 책임을 다하라



지난 5월 7일(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1교구 마리아 선교회원들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에 그분들을 섬기는 일 또한 선교구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날 마리아선교회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서 카네이션을 사 왔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과봉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마친 후 서둘러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광림교회의 방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21교구와 신현대아파트노인정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9년에 미성, 신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50여 분께 장수사진을 찍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진을 찍으셨던 어르신들은 더욱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카네이션과 과봉을

전달하며 정성을 담아 축복송을 불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선교회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은 광림교회에 늘 고맙다며 다음에 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권사님이신 노인회장님도 선교와 복지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마리아선교회원 중에는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지만 노인정에 처음 들어와 봤어요” 하는 성도님이 있었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향후 어떻게 지역 선교를 감당할지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반기에는 심방이 필요하신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TV 채널에 CTS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드림으로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예정이며 명절에는 떡국 봉사, 옷놀이 대회 등과 같은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30~40 젊은 세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대, 어린 자녀들을 위한 행사 등으로 ‘우리 동네 좋은 교회’로서 지역적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7선교구의 지역 선교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용식 목사(7선교구)

광림남교회

어버이주일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세대 간 교제 나눠



5월 둘째 주 어버이주일은 광림남교회 모든 부서가 연합하여 섬기는 주일이었습니다.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어버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 오신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찬양으로 축복했습니다. 여선교회에서는 전통차와 떡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교회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보다 귀하게 여긴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이어받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달했고, 선교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옛적을 회상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고교시절을 테마로 한 추억의 사진관, 달달한 간식으로 준비된 추억의 과자 코너, 그 시절 이야기가 담긴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예수와 카페 앞 광장에서는 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을 준비하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과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주일 행사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리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되돌아가고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그 다음세대로 흘러 들어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세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예배자요, 믿음의 기업으로 서게 될 것을 함께 간구하며 고백하는 어버이주일을 보냈습니다.

준비한 분들이나 참여한 분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복음 안에서 한마음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광림남교회는 주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서로 나눌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윤사무엘 목사(광림남교회 1선교구)

동탄광림교회

새롭게 세워진 히엘찬양단

주일저녁예배, 금요일예배의 밤 찬양 담당해



지난 5월 26일(주일) 동탄광림교회의 히엘찬양단이 세워진 지 한 달을 맞아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히엘찬양단 모집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광정규 권사(75교구)를 단장으로 현재는 금요일예배의 밤 팀과 주일저녁예배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찬양에 임하고 있습니다.

히엘찬양단은 드림을 연주하는 이예성 학생(중등부)부터 40대 청장년이 주축이 되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는 단원들의 큰 헌신으로 각 예배마다 찬양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찬양을 통해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히엘찬양단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찬양함에 기쁨을 누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히엘이 담고 있는 의미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처럼, 히엘찬양단의 찬양을 통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임재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1-6)

시편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몸이 악기가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노래가 되어 호흡이 다할 때까지 찬양하는 히엘찬양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형준 전도사(동탄광림교회)

담임목사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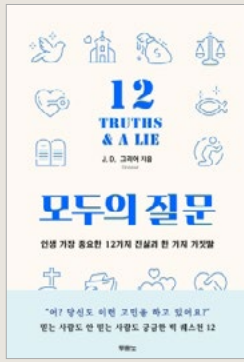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캐롤린 레이시 지음 | 생명의말씀사

이 책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단순히 때에 맞는 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살리며, 진리를 전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 책이 그 시작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모두의 질문]

J. D. 그리어 지음 | 두란노

이 책은 저자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받아왔던 수많은 질문 중 12가지 공통 질문을 모아 놓았다. 저마다 삶과 신앙생활에서 마음 속 깊이 숨겨 두었던 질문, 가장 혼하면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성경의 진리로 헤쳐 나간다.

거짓과 진실이 모호하게 섞인 '유사 진리'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에게 진실된 진리만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02-2056-5730)

방송문화선교위원회 - 문선기 권사

내가 잡는 한 컷 영상으로 세계 방방곡곡 복음 전해지기를



오랜 기간 봉사하면서 받은 은혜는?

제가 광림교회에 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 가정에는 늘 평화가 넘쳤습니다. 세 딸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는 영광과 은혜도 받았고요. 저는 늘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고가의 장비를 다룰 수 있을까?'라는 감사와 자부심으로 봉사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귀한 봉사직을 담당할 수 있게 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송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 모습보다 교회 시설물 등에 앵글을 맞춰야 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늘 카메라 봉사를 하러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은?

7년 전 영종도로 이사 갔어요. 방송실에서 송별 파티까지 해줬는데 광림교회가 그리

워 금방 다시 돌아왔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에 가서 첫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오면 정확히 1부 예배 시작 10분 전인 거예요. '여기서 계속 봉사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였죠.

이제 제 나이가 80살이 다 되어 가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세계 방방곡곡에 내가 잡는 한 컷의 영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젊은 성도들이 방송문화선교위원회에 와서 함께 봉사했으면 합니다.

광림교회 방송문화선교위원회에서는 카메라, 자막, 음향, 연출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 광림방송 KLB 방용준 PD (010-4527-7802)

박희윤 기자

광림교회의 방송문화선교위원회(위원장 오해일 장로)는 본당 주일예배, 트리니티, 수요일예배, 저녁예배 등을 지교회와 CTS 기독교 방송 채널로 국내와 해외에 중계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방송 선교 사역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광림교회 방송실에는 웬만한 방송국 못지않은 다양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전문 인력과 봉사자들이 함께 교회의 방송을 책임지고 있다.

문선기 권사는 30년간 광림교회 본당의 카메라와 방송 영상 송출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한자리에서 꾸준히 섬기고 있다.

광림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게 된 계기는? 1967년 제가 공군 재직 시절 故김선도 감독님이 공군 부대 군목으로 계셨어요. 제

대 후 1975년 민방위 훈련 1기생으로 훈련을 받으려고 광림교회에 왔다가 감독님이 하시는 설교를 다시 듣게 되었어요. 이후 아내의 권유로 광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요. 저는 원래 카메라 다루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배도 늘 카메라 뒤에서 드렸어요. 그러다 봉사를 해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방송실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방송실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호렙산 기도회, 주일예배 1부부터 3부까지 카메라 촬영을 담당했어요. 현재 주일예배 1부에는 본당 2층에 있는 1번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 2부와 3부에는 4층 방송실에서 PD를 도와 송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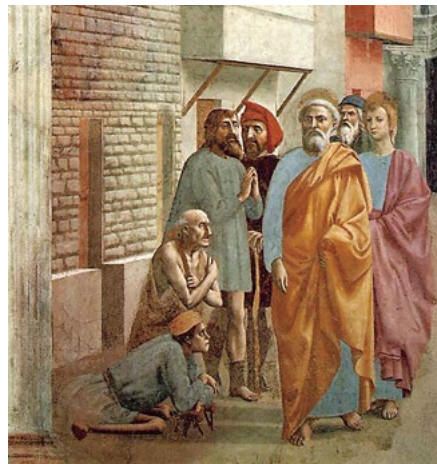
헤롯의 박해와 베드로의 탈옥 ②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뚝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나냐” (행 12:6-9)

그제야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닌 사실인 것을 알았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왕의 악하고 용졸한 수작과 유대인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놀라움과 동시에 감격한 베드로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이곳은 교회의 분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베드로가 마당으로 난 문을 두드리자 로테라는 젊은 여인이 나왔다.

“문을 열어 주시오.”
“이 밤중에 누구세요?”
“로테, 나 베드로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확인한 로테는 너무 놀란 나머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도 잊은 채 그가 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다. 로테가 말하였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네가 제정신이나?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느냐?”



▲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파_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다. 왼쪽에 앉은뱅이의 가련한 모습도 보인다. 마사초의 작품.

로테의 말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모두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로테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베드로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계속 바깥에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라는 베드로의 목소리도 들려오자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여니 과연 베드로였다. 그들은 몹시 흥분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집안에 들어가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 주셨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라고 말하였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알리십시오.” 그러고는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몸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동이 트자 감옥에서는 난리가 났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지?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지?” 철저하게 경비하던 베드로가 사라진 사실에 모두가 어안이 병병했다. 두 병사와 함께 묶은 쇠사슬을 어떻게 풀었으며, 경비병들을 어떻게 통과했으며, 또 굳게 잠긴 철문은 어떻게 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탈옥의 흔적도 없었고, 베드로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난리였지만, 감옥의 간수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베드로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유도 대지 못하자 헤롯 왕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 헤롯왕을 책망하는 베드로_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왕은 결국 자신의 교만함으로 급사했다.

“베드로를 지키던 병사들의 머리를 쳐라!” 유대와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해진 헤롯왕은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그러나 헤롯왕의 상황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달았다. 당시 북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왕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표단을 소집해 헤롯왕을 찾았다. 그들을 접견하기로 한 헤롯왕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보좌에 앉아 잔뜩 허세를 부렸다. 헤롯왕에게 잘 보여야 했던 그들은 소리 높여 아첨했다. “폐하의 말씀은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헤롯의 교만을 더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헤롯왕을 급사하게 하였다. 뺏속까지 부패했던 헤롯왕은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 그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자기 예수를 죽이려다가 죽은 것처럼, 헤롯왕은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죽은 것이다.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